

주요 내용

1. [마을목회 인식조사]

통계로 보는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취약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실태

2) 한국 청년층의 직장 이직 실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통계로 보는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교회가 속한 세상은 지역 사회, 즉 '마을'이다. 교회가 국가,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마을이라는 단위를 무시하고는 교회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을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교회 밖을 넘어서 마을로 확대되고 있다. 교회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을을 도울 때 교회는 세상과 접촉점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갖고 나타난 활동이 '마을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단순히 전도의 방법을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교회에 우호적 감정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생존 방식을 바꾸며, 교회의 사명 실현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마을목회이다. 모든 목회자, 심지어 현재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도 99%가 마을목회 필요성에 동의한다.

<넘버즈 153호>에서는 마을목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목회는 어떤 것인지, 마을목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넘버즈 153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마을목회 인식 조사

마을목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할 수 있고, 교인들의 돌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전인적 삶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소장 정재영 교수)는 새로운 선교적 흐름으로 마을목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여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의 체계화 방안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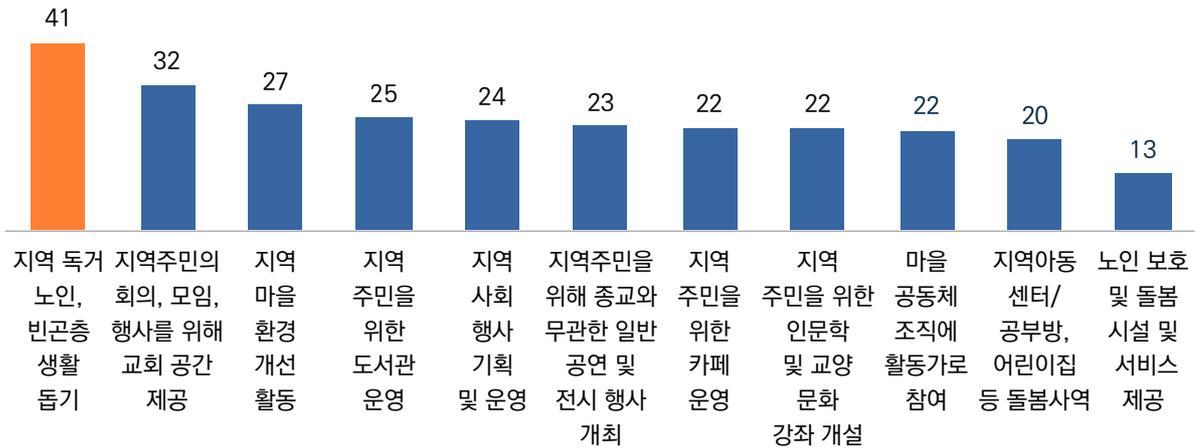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목회자(목사, 강도사, 전도사)
• 조사 지역	전국
• 조사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휴대전화를 통해 URL 발송) - 목회데이터연구소 구독 목회자, 마을목회 참여 목회자, 페이스북 활용
• 표본 규모	총 507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3월 24일 ~ 30일 (7일간)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대표적인 마을목회, '지역 빈곤층 돕기 활동'!

- ▶ 마을목회 활동으로는 지역 빈곤층 돕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른 활동들은 시설, 전문성 등이 요구 되는데 비해 빈곤층 돕기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그 외 마을목회 활동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의 특성 및 목회자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마을의 특성을 잘 분석하는 것이 마을목회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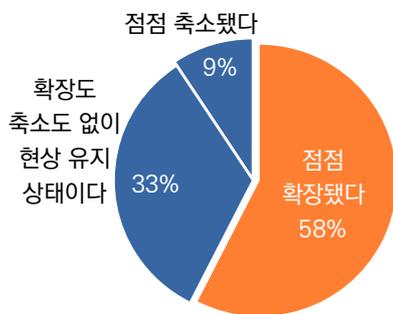
[그림] 실시하고 있는 마을목회 활동 (마을목회 하는 목회자, 중복응답, 상위 1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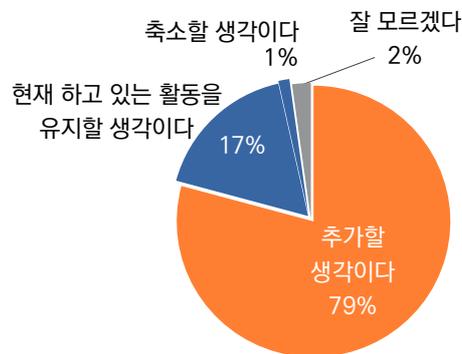
◎ 한국교회에서 마을목회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 ▶ 마을목회자들은 마을목회를 시작할 때 보다 현재 확대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목회를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 ▶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초기대비 마을목회 변화



[그림] 향후 마을목회 확대 의향



◎ 마을목회하는 목회자 특성 → 연령이 높고 교회 규모 클수록 많아!

- ▶ 마을목회하는 목회자(담임목사)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대체로 목회 경력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마을목회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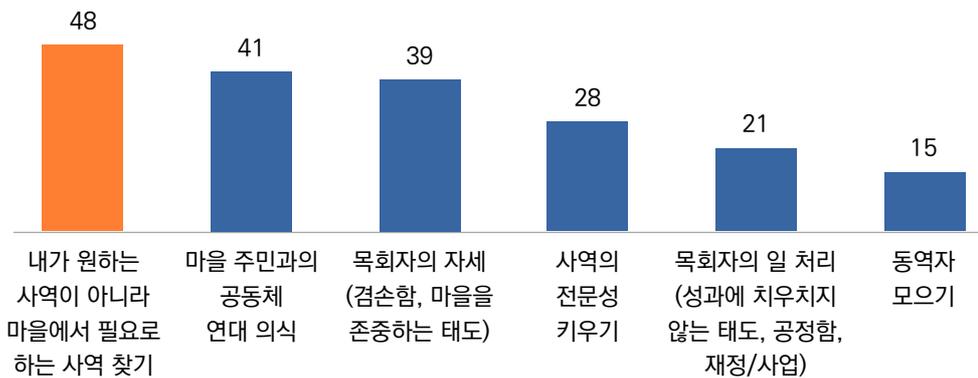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하는 목회자 특성 (담임목사 기준, %)



02 마을목회는 ‘마을 중심’으로!

- ▶ 마을목회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 찾기’(48%)이다. 마을목회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마을의 수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연대 의식’(41%)과 ‘목회자의 자세’(39%) 등 마을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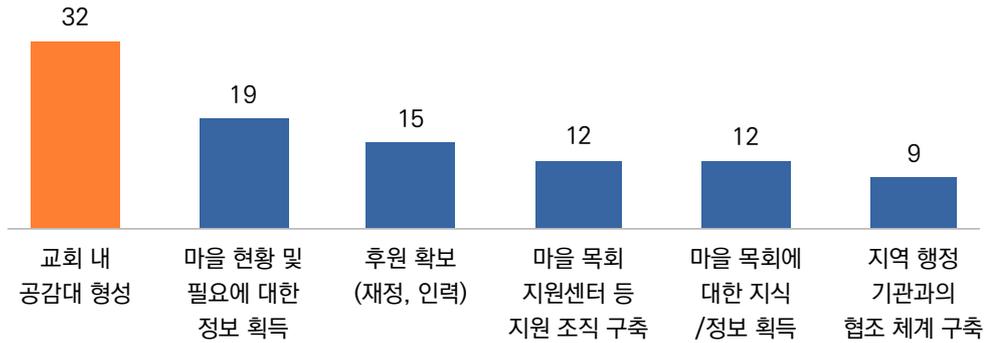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할 때 고려 사항 (1+2순위, 상위 6개, %)



◎ 마을목회는 교인들과 함께!

- ▶ 마을목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응답(32%)이 가장 많아서, 마을목회를 목회자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
- ▶ 그 다음으로 마을에 대한 정보 획득, 즉 마을에 대한 이해(19%)와, 후원 확보(15%)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을목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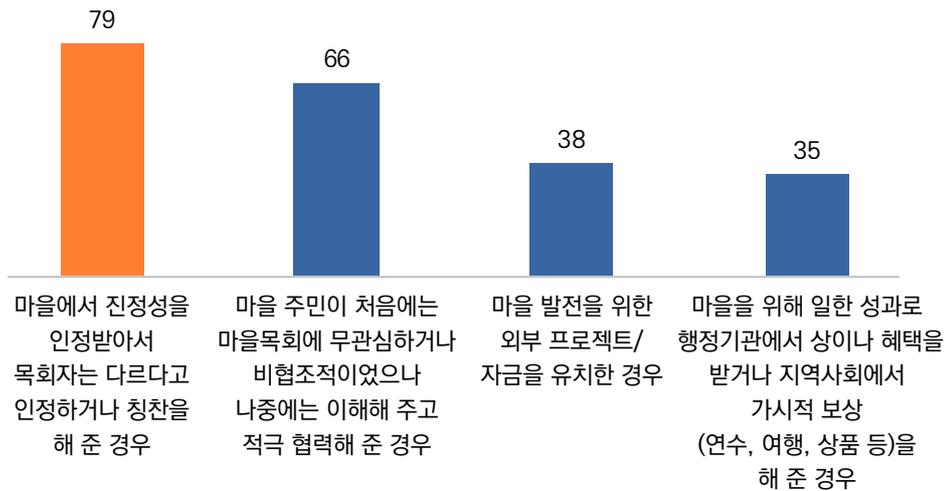


03

마을목회,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 ▶ 마을목회 하는 교회(목회자)를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이해해주고 적극 협력해 주었으며(66%), 지역사회로부터 교회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긍정적인 칭찬(79%)을 받기도 한다. 그야말로 바닥수준인 한국교회 신뢰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역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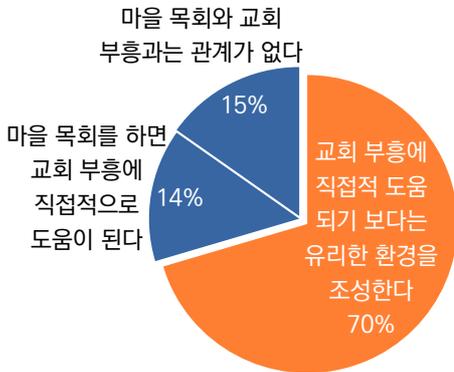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하면서 항목별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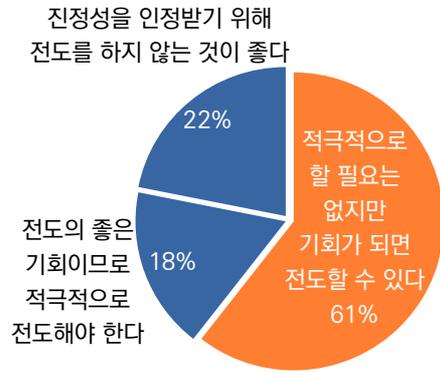
◎ 마을목회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교회 부흥에 기여한다!

- ▶ 마을목회 목회자들은 마을목회에 대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구현, 이웃 사랑이 목적이므로 마을목회가 직접적인 교회 부흥 혹은 전도의 수단은 아니지만, 전도와 교회 부흥에 유리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마을목회와 교회 부흥의 관계



[그림] 마을목회와 전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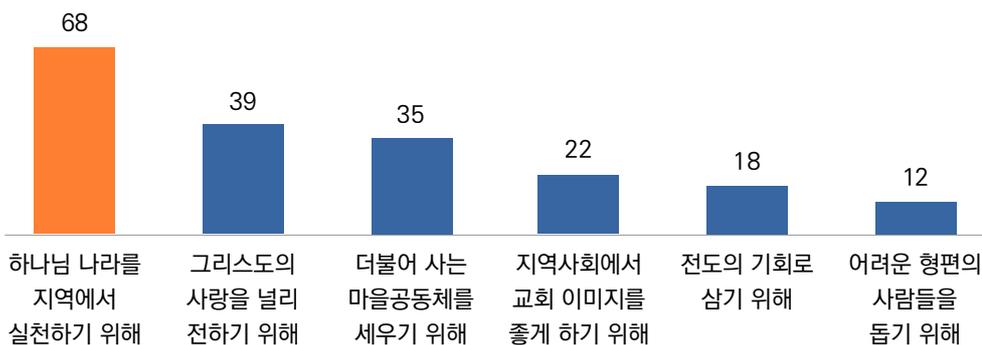


04

마을목회 목적은 '하나님 나라 실현'이다!

- ▶ 마을목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68%)
- ▶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39%)와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서(35%) 마을목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즉, '이웃 사랑'의 목적도 마을목회의 주요 목적이다.
- ▶ 한편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는 18%로 높지 않았는데, 마을목회자는 마을목회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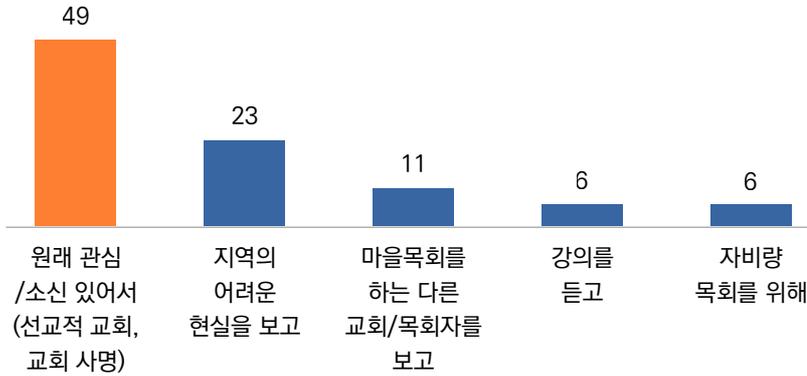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하는 목적 (1+2순위, 상위 6개, %)



◎ 마을목회는 목회적 소신 때문에 한다!

- ▶ 마을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소의 목회적 소신' 때문에 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었다.(49%) 이때 목회적 소신은 '선교적 교회', '이웃 사랑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 ▶ 원래 소신은 아니지만 '지역 현실을 보고'(23%), '마을목회 교회/목회자를 보고'(11%) 등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마을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마을목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그림] 마을목회 하게 된 계기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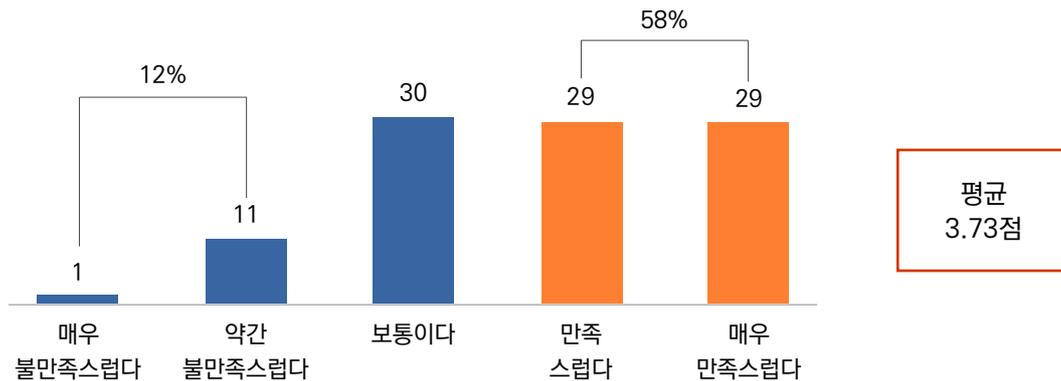


05

마을목회를 하는 목회자, 스스로 만족도 높다!

- ▶ 마을목회자들은 마을목회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5점 척도)이 58%, 보통 30%, 불만족 12%로 만족 비율이 불만족 보다 매우 높았다. 평균점수 또한 3.73점으로 높았다.
- ▶ 만족 비율 가운데 '매우 만족'이 29%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마을목회가 목회자로서의 사명감 충족에 효과적인 목회 방식임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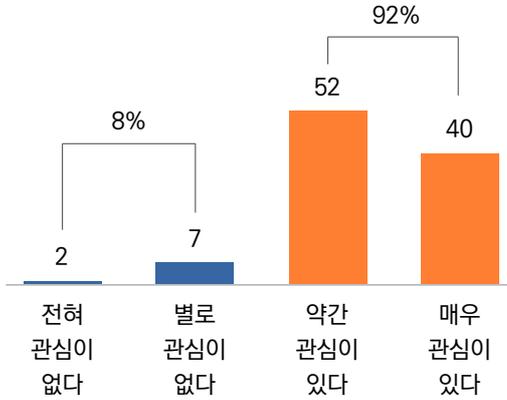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만족도 (5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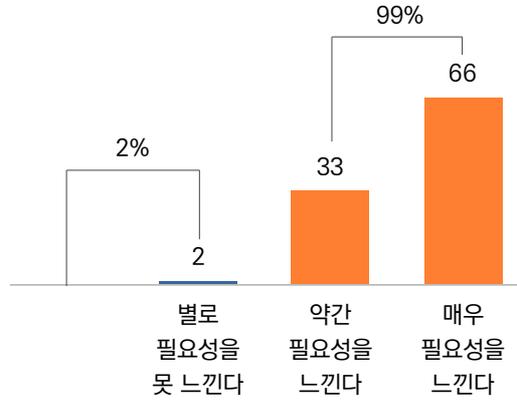
◎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절대다수, ‘마을목회 필요성’ 공감

- ▶ 마을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마을목회를 설명했을 때, 거의 모두가 ‘관심있다’(92%)고 했고, ‘필요하다’(99%)고 응답했다.
- ▶ 개인적 관심도가 높으며, 개인적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마을목회 관심도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



[그림] 마을목회 필요성 (마을목회 하지 않는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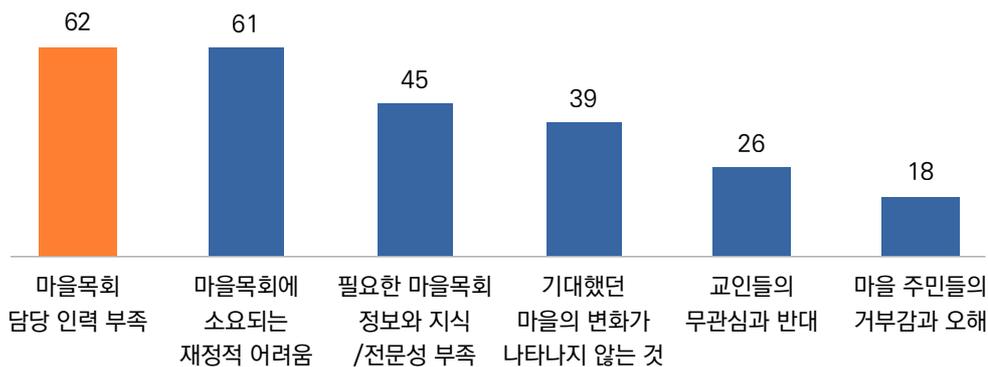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6

마을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과 ‘재정’이다!

- ▶ 마을목회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62%)과 ‘재정적 어려움’(61%)이었다.
- ▶ 그 외에 ‘마을목회 정보와 지식/전문성 부족’(45%),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39%), ‘교인들의 무관심과 반대’(26%)도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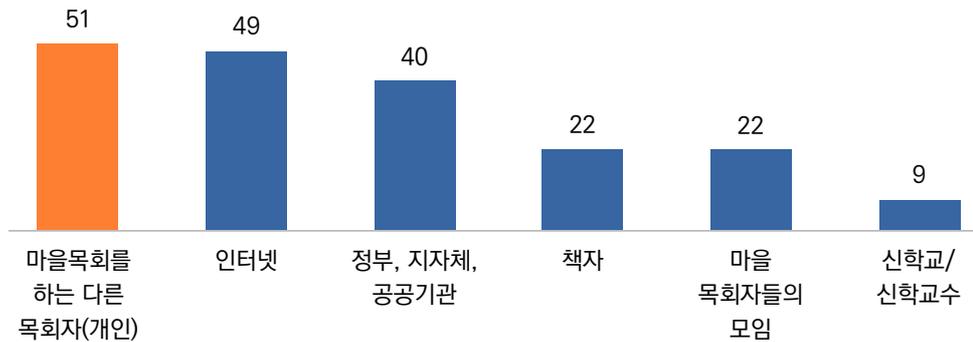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어려움 (1+2+3순위, 상위 6개, %)



◎ 그러나 아직까지 마을목회는 비체계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마을목회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로는 ‘마을목회를 하는 다른 목회자’였다. 그것도 ‘마을목회자 모임’(22%)이 아니라 ‘마을목회자 개인’(51%)이었다.
- ▶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49%이었는데, ‘마을목회자 개인’이나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는 체계적 정보가 아니라 단편적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 ▶ 단편적 정보는 마을목회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접근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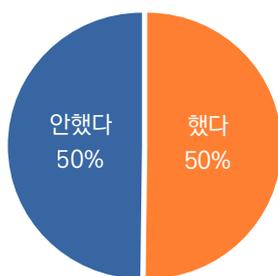
[그림] 마을목회 정보 획득 경로 (1+2순위, 상위 6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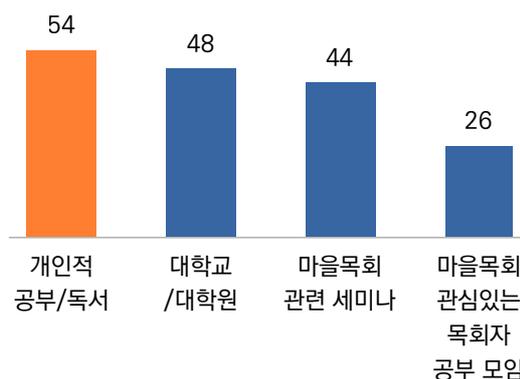
◎ 마을목회,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시스템 필요!

- ▶ 마을목회자들의 마을목회 관련 정보가 단편적 정보인 것은 왜 그럴까? 마을목회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가 부족해서이다. (‘마을목회를 공부했다’ 50%)
- ▶ 공부도 개인적으로 공부한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다.
- ▶ 체계적이고 현실 적합성이 높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대학교, 세미나 등을 통한 공부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마을목회 관련 공부 여부



[그림] 마을목회 관련 공부 방법 (중복응답, %)



시사점

산업발전기, 민주화 시기에는 산업발전과 민주화가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 목표가 국가를 단위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짜서 정책을 실행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포항, 울산, 구미 등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민주화는 국가의 권력 구조를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된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사고가 국가 단위에 맞춰져 있었다.

산업발전기를 지나서 삶의 질이 중요해진 시기로 들어오면 '지역'이 중요해졌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터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가 지역이므로 지역의 발전이 없으면 생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일어났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정책을 실행하므로 지역 단위의 발전과 개선은 지역에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래서 지역의 주체적, 자발적 자치 운동을 풀뿌리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을운동은 하향식 운동이 아니라 상향식, 즉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마을목회는 마을 운동을 교회 차원에서 구현하는 활동이다. 목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즉 마을로까지 이어져 마을 공간, 사람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목회이다.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 개념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시공간, 즉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이 마을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마을이 중심이 된 목회이다. 마을목회가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는 모두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농촌과 도시, 구도시와 신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단독주택과 아파트,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 등등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마을마다 다른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교회의 의지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한 것처럼 마을

목회는 마을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마을의 일원이 되는 목회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펼쳐 온 사회봉사는 구제 중심이었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가 대상화되고 교회는 베푸는 자, 시혜자가 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들 속으로 들어 가신 것처럼 마을목회는 교회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의 일원이 되어 마을과 함께 하는 실천 운동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낮은 자세로 마을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마을목회가 성공한다.

마을목회는 직접적으로 전도의 수단이 아니다. 마을목회는 그 자체로 이웃 사랑의 행위이다. 국민일보가 코디연구소와 함께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봉사를 진정성있게 하는 종교로 가톨릭이 2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개신교는 14%로 가톨릭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개신교 사회 봉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인은 개신교의 사회봉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75%)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보면 마을에서 교회가 전도를 위해 마을 활동을 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교회는 마을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마을목회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마을목회는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마을목회는 전문성이 필요한 목회이다. 마을목회는 단순 구제 활동에서부터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 운영, 지역사회 경제 운동, 환경 운동, 청소년 활동 등등 여러 분야가 있고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마을목회자들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유리될 수 없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세상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추락한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 마을목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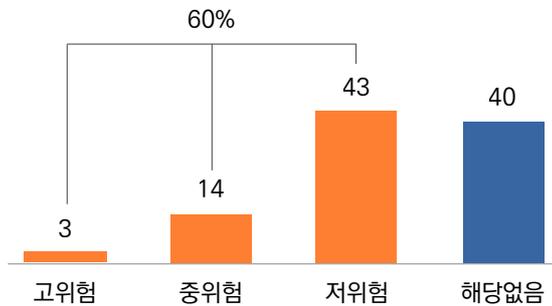
- 1.[취약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 실태]
- 2.[한국 청년층의 직장 이직 실태]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고독사 위험군'!

- ▶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혼자 사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60%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서울시의 경우 보통 '3일')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고립 여부 정도로 구분하는데,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수화하여 70~100점은 '고위험군', 40~60점은 '중위험군', 10~30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응답자 중 고위험군은 3%, 중위험군 14%, 저위험군 43%로 조사됐고,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집단'은 40%였다.

[그림]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분포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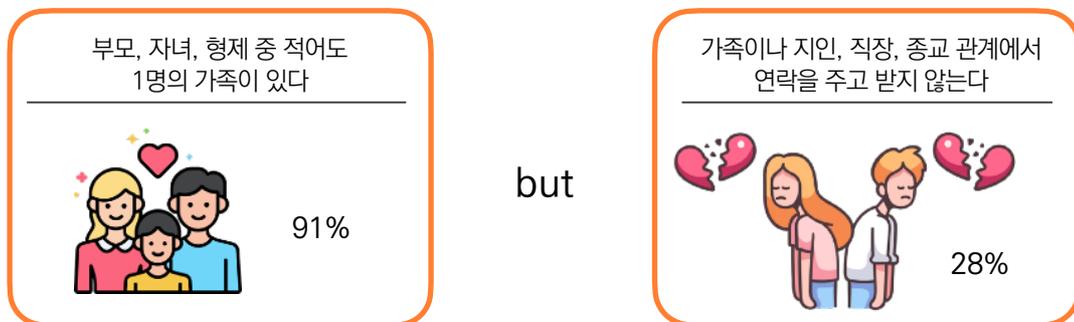
*자료 출처: 동아일보, 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 기사 참조, 2022.06.20.(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60,677명, 면접조사,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06461/1>)

**최근 10년간 실패나 상실 경험, 최근 1주일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혼자 술을 마신 횟수, 최근 1주일간 평균 식사 횟수, 10년간 이사 10회 이상이거나 거주지 미상 여부,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한 경험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횟수와 해당 여부에 따라 10점의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음.

◎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중 28%는 사회적 고립 상태!

- ▶ '부모, 자녀,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91%로 대다수였다. 그러나 28%는 '가족, 지인, 직장,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비율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적 고립 상태 (복수응답,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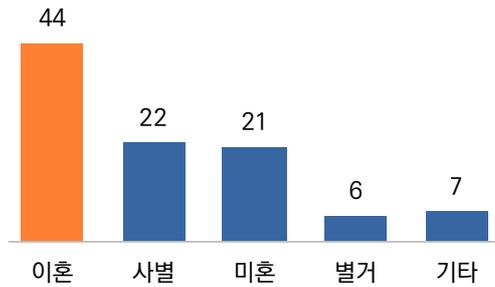


*자료 출처: 동아일보, 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 기사 참조, 2022.06.20.(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60,677명, 면접조사,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064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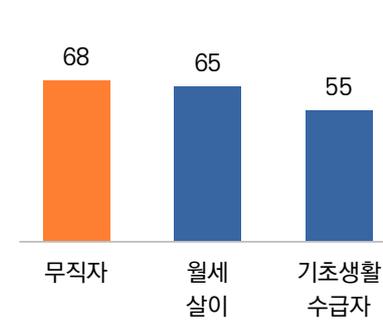
◎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 44%가 이혼자

- ▶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의 44%는 이혼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별(22%), 미혼(21%), 별거(6%) 등의 순이었다.
- ▶ 이들 중에는 무직(68%), 월세살이(65%), 기초생활수급자(55%)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가 각각 절반을 넘었다.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특별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에 대해 지원뿐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시급하다.

[그림] 1인 가구 사유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 %)



[그림]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관련 항목별 비율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 가구 대상, %)



*자료 출처 : 동아일보, 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 기사 참조, 2022.06.20.(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60,677명, 면접조사,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06461/1>)



한국 청년, 4명 중 3명은 '이직 경험 있다' 첫 직장에서선 평균 3년 근무!

- ▶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직장이동 실태 자료(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소 1회 이상 직장을 옮긴(이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76%로 4명 중 3명에 달했고, 1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 첫 직장에서 평균 3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청년 직장인의 이직경험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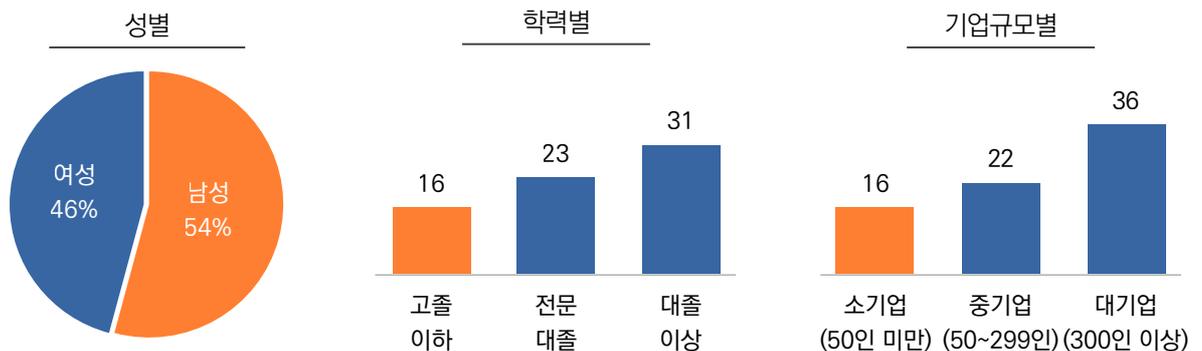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청년 10명 중 8명, 첫 직장 떠난다...평균 2.9년만에 이직' 기사 참조, 2022.06.1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894#home>)
*원자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수록 논문(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황광훈/조용운), (2000~2010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임금근로자 3,419명, 2022.06.10.)

◎ 청년의 첫 직장 유지율, 대기업/고학력/남성 일수록 높아!

- ▶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비율(첫 일자리 유지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교적 높았다. 첫 일자리부터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이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청년 직장인의 첫 일자리 유지 비율 (%)



*자료 출처: 중앙일보, '청년 10명 중 8명, 첫 직장 떠난다...평균 2.9년만에 이직' 기사 참조, 2022.06.1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894#home>)
*원자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수록 논문(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과정에 관한 실증연구(황광훈/조용운), (2000~2010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한 임금근로자 3,419명, 2022.06.1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3호\(2022년 7월 2주\)](#)

- 정당별 호감도,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향후 방역 수준, 백신 추가 접종 의향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5호\(2022년 7월 2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 사회 일반

[직장인 여름휴가 평균 3.6일...기업 절반은 "휴가비 주겠다"](#)

중앙일보_2022.07.12.

["애들한테 손벌리기 싫어"...자격증 '열공'하는 5060 마쳐세대](#)

매일경제_2022.07.17.

["혼자 사는 중고령자, 가족 있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 낮아"](#)

연합뉴스_2022.07.15.

[국민 82%가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

조선일보_2022.07.14.

[韓 인구 대비 병상수, OECD 평균의 3배...요양병상은 9배](#)

연합뉴스_2022.07.14.

[올해 상반기 떼인 전세금 3천407억, 사상 최대...서울·경기 73%](#)

연합뉴스_2022.07.11.

[교육환경·소득 수준 높은 '강남 3구' 서울시민 행복도 최상... 금천·도봉은 평균 밑돌아](#)

조선일보_2022.07.17.

[한국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 많았다...16년 만에 처음](#)

중앙일보_2022.07.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년만에 1만8천906건 신고](#)

매일경제_2022.07.14.

["생산성 향상에 도움" 놀며 일하는 워케이션, 해외로 확대](#)

중앙일보_2022.07.16.

◎ 청소년 / 청년

['미래 허준이' 영재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종합2위...중국 순위는](#)

조선일보_2022.07.17.

[코로나19 유행에...서울 초등생 3명중 1명 '비만·과체중'](#)

문화일보_2022.07.17.

[대학생 90% "농업 중요하다"면서, 농촌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0.6%](#)

조선일보_2022.07.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청년알바 34% 최저임금 못받아… “더 나은 곳 없어 약조건 감수”](#)

동아일보_2022.07.14.

['빚투' 부메랑에…2030, 부모푼으로 돌아갔다](#)

매일경제_2022.07.17.

[아이는 갖고싶고 결혼은 늦고… “난자 얼려요”](#)

조선일보_2022.07.15.

◎ 국제

[미국의 총기산업 현황과 총기규제 실패하는 이유](#)

문화일보_2022.07.13.

[회사 일에 지장 없을까? 세계는 지금 ‘100:80:100 주4일제’ 실험 중](#)

조선일보_2022.07.14.

[달려 초강세에 신흥국 위기감 고조…일부 국가 부도 우려](#)

연합뉴스_2022.07.16.

◎ 건강

[초고령사회가 코앞인데… 한국엔 국립 노화·장수 연구소가 없다](#)

조선일보_2022.07.13.

[‘벼락치기 근무’ 몸에 해로워…지난주보다 10시간 더 일했다면 조심](#)

한겨레_2022.07.13.

◎ 트렌드

[2022 일상 생활 루틴\(습관\) 및 미라클 모닝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2.07.15.

◎ 기독교 / 종교

[“퀴어축제 반대” 52%, 찬성 응답보다 2배 많아](#)

아이굿뉴스_2022.07.14.

[美 복음주의자 중 40%만 “성경은 실제 하나님 말씀”](#)

크리스천투데이_2022.07.14.

[\(칼럼\) 예배실 환경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겐 커다란 가치로 경험](#)

한국기독교공보_2022.07.1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이슈 큐레이션

[‘33명 사형수 인터뷰’ 김대근 박사](#)

[한겨레21_2022.07.15.](#)

◎ 기획기사 : 청년, 고립되다’, (서울신문)

[1. 절반의 청춘, ‘나’를 가두다 _2022.07.17.](#)

[2. “사회 복귀 못 할까봐 두려워”... 6년 만에 방에서 나온 그가 웃었다 _2022.07.17.](#)

[3. 고립 경험 청년 4명 중 3명 “20세 이후 첫 증상”... 예방하려면 아동청소년 때 _2022.07.17.](#)

[4. 학폭·가족 갈등·입시 실패로 시작된 ‘은둔’... 관심·격려가 절실했다 _2022.07.17.](#)

[5. 연극 무대 위에 쏟아낸 나의 은둔 이야기... ‘해묵은 고립’ 덜어냈다 _2022.07.18.](#)

◎ 기획기사 : 한국형 절망사 보고서, (조선일보)

[1. 스스로 세상과 이별 선택한 스물아홉 청년... 빈 방에는 코인 차트만 가득했다 _2022.06.15.](#)

[2. 우울증 잊기 위해 무심코 빠진 유혹... “약물로 느낀 쾌락은 허상” _2022.06.17.](#)

[3. 한두잔 마시던 혼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할 때 마신 술은 절망의 ‘독’ _2022.06.20.](#)

[4. 약물·알코올 중독자 회복·재활 지원 필요... “비난보다 다가가 손 잡아줘야” _2022.06.2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중앙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협회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CTS기독교TV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